

기나긴 8월... 확진자 역대 최다

한달 동안에만 860명... 진단검사도 9만건 넘어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에 집단감염 급속 확산 도, 확진자 추세 등 분석후 추석연휴 대책 마련

8월 제주지역에서 역대 최대 인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이 대유행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60명으로 도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최다 확진 기록을 보였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한달 간 9만3396건이 진행되며 최다 건수를 나타냈다.

8월 제주에선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코로나19 주요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인한 집단감염이 확산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달 확진자 86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601명(69.9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 이력자가 91명(10.6%), 해외입국자 14명(1.6%) 등이며 나머지 154명(17.9%)은 '감염경로 미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광복절 연휴가 끼여있던 8월 중순

엔 하루 기준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12일 37명에 이어 13일 44명, 14일 55명, 15일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수치인 64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특히 이달 확진자 중 321명(36%)이 9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이달 집단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중에선 최초 감염 환자(지표환자)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감염 별로 보면 '제주시 노래 연습장' 관련 집단감염으로 102명이 확진돼 도내 집단감염 사례 중 최다 발생 분포를 보였다. 또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선 39명이 감염된 가운데 무더기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그 외 ▷ '제주시 학원2' 64명 ▷ '제주시 직장5' 38명 ▷ '제주시 대형마트' 26명 ▷ '제주시 종합병원' 17명 ▷ '제주시 음식점3' 12명

▷ '제주시 지인 3' 10명 ▷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14명 등이다.

특히 '제주시 대형마트'로 분류된 이마트 신제주점의 동선이 휴일 저녁 공개되면서 지난달 23일 당시 하루 기준 최대 검사 수치인 9715건의 진단검사가 몰렸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8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으며 오는 1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5% 이상 지배종이 돼버린 현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안정화가 된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있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연휴 등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3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와 추석 방역대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은 정부 동향과 최근 확진자 추세 등을 종합 분석해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일 오후 5시까지 11명(2613-262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6명이다. 강다혜기자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오는 11월 18일 문·이과 통합 체제로 처음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달여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1일 도내 고등학교 등에서 실시됐다. 이날 9월 모의평가에는 고3 재학생 6200여명, 졸업생 1000여명 등 7300여명이 응시했다. 사진은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실. 이상국기자

■ 경찰을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해보니...

하루 6명꼴 적발... 상당수 만취상태

261명 적발... 면허취소 165명 "향후 요일과 시간대 관계없이 도 전역에서 불시 단속할 것"

휴가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식은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기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총 261명에 달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은 96명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진

행해 24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 제주 전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1021건(취소 656명·정지 365명)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6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91명이 다쳤다. 송은범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283건 적발

자치경찰단 6-8월 집중단속

제주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 6-8월 집중 단속 결과 위반사항 283건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7건

등이다. 월별로는 6월 105건, 7월 124건, 8월 54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6개사)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창경 도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2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경찰, 24곳에 인력 배치

제주도내 초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맞으면서 경찰이 어린이 보호에 앞장선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60건(2018년 223건, 2019년 287건, 2020년 250건) 발생했다. 이 중 스포츠장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48건(2018년 13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 24개소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교통경찰관은 등교 시간 대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정리에 나서게 된다.

학교 시간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순찰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강민성기자

백광석·김시남 "네가 죽었잖아"

중학생 피살사건 첫 공판... 살인 책임 떠넘겨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와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도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16)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와 김씨는 살인에 대한 '결정적 기여'는 상대방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먼저 백씨 측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한 것은 김씨"라며 "A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허리띠로 목을 조른 사람도 김씨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범행 현장에 있던 허리띠로 A군을 졸랐고, 김씨는 A군을 뒤에서 안고만

있었다"며 "이후 A군이 의식을 잃자 김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즉 김씨는 A군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백씨와 김씨가 번갈아가며 목을 졸랐고, A군의 숨이 끊어질 당시 목을 조른 인물은 김씨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 2차 공판에서 대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 3명을 증인석에 앉혀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결정적 기여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며 "이 부분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마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먼저 설치하면, 이후엔 단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마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먼저 들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줄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소속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업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祝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색식 정진기색 수도매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